

2026 March

FX Market Monthly Letter

연구위원 서정훈

****@*anafn.com

연구위원 이유정

****.*@hanafn.com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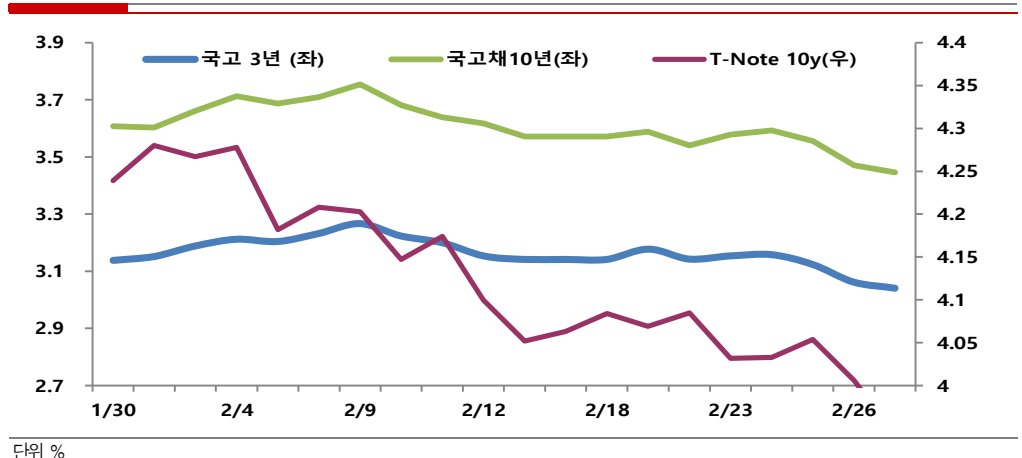
2월 동향

뉴욕 금융시장 AI 고평가 논란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반영하며 출발한 국고채 금리는 이어, 일본 자민당 선거 압승 결과 등으로 상승 전환 후, 금융당국의 과도한 금리 상승 우려 영향과 한은 비둘기적 영향 등이 반영되며 하락 마감

- 월 초, 차기 연준 의장에 매파로 인식된 워시 지명되면서 국내외 금리 상승 출발. 이어 뉴욕 금융시장 AI 고평가 논란에 안전자산 선호가 일시 나타났으나, 일본 중의원 선거의 자민당 압승에 따른 일본 국채금리 상승 흐름 반영된 국면 시현
 - 월 초, 차기 연준 의장으로 시장이 매파적으로 인식한 케빈 워시가 지명된 영향 반영 속 국내외 금리 상승 출발. 또한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 영향 또한 국고채 금리 상승 동인으로 작용했지만, 뉴욕증시에서의 AI고평가 논란 등이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친 형국
 - 하지만, 이어진 일본 중의원 선거의 자민당 압승 결과로 인해 일본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국고채 금리도 재차 상승 압력 강화되는 국면을 보였으나, 미 고용보고서에 대한 시장의 둔화 기대가 반영 속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등으로 다시금 하락 전환한 국면
- 중반, 미 고용 및 소비지표가 견조함을 보인 가운데 최근 금리 상승 과도에 대한 한은 구두 개입 영향에 하락 전환. 이어 미국, 이란 공습 임박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흐름에도 2월 금통위 매파 가능성 등이 하단 제한한 국면 시현
 - 중반, 미 1월 비농업고용지표의 시장 예상 상회와 국고채 시장 약세를 견인했지만, 이어 한은의 최근 금리 상승이 과도하다는 구두 개입성 발언으로 국고채 금리는 7거래일간 상승을 멈추고 3.1%대로 큰 폭 하락 전환
 - 하지만, 미국의 이란 공습 가능성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가 촉발되며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는 국면 보였지만, 연준 1월 FOMC 의사록이 다소 매파적으로 평가된 측면과 2월 금통위에 대한 결과가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일 것이란 우려 등이 하락폭 제한에 영향
- 후반, 미 연방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 영향과 한은 국내 성장 전망 호조 시사 등으로 상승 흐름 이어간 금리는 이어진 미-이란 간 핵 협상 타결 기대에도 한은 금통위의 비교적 비둘기적 해석 등으로 하락 마감
 - 후반, 미 연방대법원으로부터 관세의 위법 판결이 도출되며 국내외 금리 상방 흐름에 영향. 여기에 국내적으로도 한은의 양호한 내수 경기와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성장을 상향 전망에 국고채 금리 상승 흐름이 나타난 국면
 - 이어, 미-이란 사이, 핵협상에 대한 불안정성이 변동성 양상을 확대했으나, 타결 가능성의 긍정적 전망이 금리 상방 요인으로 작용. 하지만 이후, 2월 금통위가 비교적 비둘기적으로 해석된 가운데 대외 호주, 일본 금리 하락 영향도 더해지며 국고채 금리 하락 마감

주요 시장금리 추이

2월 평균
국고채(3년): 3.04%
T-Note(10년): 4.20%



3 월 전망

중동發 지정학적 이슈 확대의 유가 급등이 국내외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 작용하며 금리 상승 동인으로 예상되나, 미-이란 갈등 첨예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와 국내 경기 모멘텀 약화 우려 등은 금리 하락 요인으로 예상

평균	1Q26	2Q26	3Q26	4Q26
국고채(3Y, %)	3.05 ^(f)	2.9 ^(f)	2.95 ^(f)	3.0 ^(f)

- 연준 차기 지명자의 스탠스에 대한 불확실성 속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도 추가 관세를 제기한 미 행정부 영향 등으로 연준의 물가 관련 매파 성향 가능성 및 최근 이란 사태에 따른 유가 불확실성의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도비시한 연준 스탠스를 제한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 국내외 금리 상방 요인으로 예상
 -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의 금리 경로 기조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 속 관세 위법 결정에 따른 우회적 관세 이슈를 제기한 트럼프 행정부 영향 등은 그간 연준의 금리인하 경로 시사 등에 대한 측면에 대해 일부 되돌림 영향으로 작용할 소지
 - 여기에 최근 미국, 이란 공습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악재 또한 인플레이션 상승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준의 매파 성향이 강화될 수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기 요인들은 주요 국내외 금리 상방 압력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전망
- 대내적으로 3월 유입 가능성이 열려있는 WGBI 자금 유입 요인 및 대외적 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우회적 관세 압력을 가하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의한 미국 경기 약화 가능성 등이 국내외 금리 하방 압력에 영향 요인으로 판단. 여기에 최근 중동 지정학적 이슈 부각 속 장기화 우려 등도 국내외 금리 하방 압력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 WGBI 자금의 3월 조기 유입 가능성 속에 대외적 미 연방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회 관세 압력 요인에 따른 관세발 미 경기 개선 모멘텀 약화 가능성 등이 국내외 금리 하방 압력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여기에 최근 중동發 지정학적 이벤트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요인도 금리 하락 요인으로 판단되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장기 봉쇄 영향은 유가 급등을 통해 금리 상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국내 민간의 내수 진작과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성장 전망 상향되었지만, 대외적으로 불거진 미-이란 중동 전쟁 이슈의 유가 급등 불확실성 등 국내 성장 모멘텀 약화를 우려한 한은 비둘기 기조 강화는 금리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지난 2월 금통위는 국내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 등 경제 개선 흐름을 반영하며 성장 전망을 2.0%로 상향. 하지만 최근 중동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된 가운데 유가 급등세 시현에 따른 국내 성장 모멘텀 약화 가능성 등은 다소 금통위 매파성 완화에 영향 미칠 전망
 - 다만, 유가 불확실성이 국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은 상기 한은의 도비시 기조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국고채 금리에 대한 통화정책 영향은 상충관계 고려 시, 다소 중립적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3월 전망
2.95%~3.25%

상승요인	하락요인
· 유가 상승 우려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 대내적 내수 진작, 수출 호조 등에 의한 성장 전망 상향 조정	· 조기 WGBI 자금 유입 가능성 · 미-이란 충돌 확산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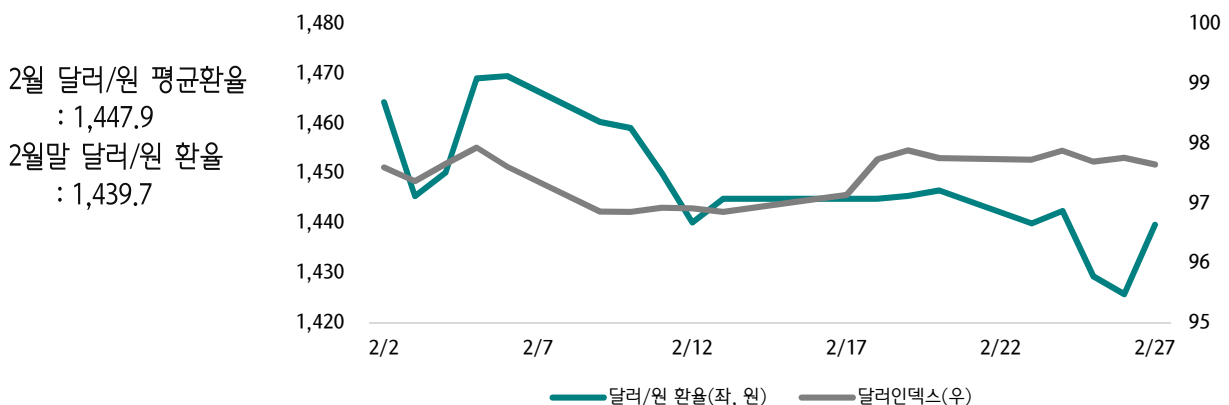
달러/원 환율

2월 동향

차기 연준 의장의 정책 성향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달러 약세와 대내 수급 여건 개선에 힘입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1,440원선에서 마감

- 월초, 다른 후보군 대비 상대적으로 매파적이라 평가받는 차기 연준 지명자 성향과 국내 증시의 대규모 외국인 자금 이탈에 1,470원대로 급등. 그러나 일본 선거 이후 나타난 엔화 가치 반등세가 달러 약세를 유도, 이에 연동되며 하락 전환
 - 차기 연준 의장으로 워시 전 이사가 지명되며 대차대조표 축소 가능성 등 매파 성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 글로벌 강달러 속 환율은 25원 가까이 급등 출발. 이후 단기 급등에 따른 되돌림 보였으나 시 논란에 따른 국내증시 역대급 외국인 순매도에 1,470원대로 상승
 - 일본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경기 부양 기대와 재정 확대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이 부각됨. 이에 BOJ 금리인상 전망이 힘을 얻으며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고, 이는 달러 약세를 유도하며 달러/원 환율의 하락 전환을 견인한 모습
- 월 중반, 설 연휴를 앞둔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과 국내 증시 내 외국인 자금 유입이 하방 압력을 가하며 환율은 장 중 1,440원 선을 하회하기도 했으나, 미 CPI 발표 전 경계감과 엔화 약세 전환에 따른 강달러 영향으로 재차 반등
 - 중반 들어, 설 연휴를 앞두고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유입되며 환율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증시 상승에 힘입은 대규모의 외국인 자금 유입에 하락 압력이 가중되며 장 중 1,440원선을 하회했음
 - 그러나 미국 1월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 내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일본 선거 이후 BOJ 금리인상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던 엔화가 되돌림되며 달러 강세를 지지하자, 달러/원 환율도 이에 연동되며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냄
- 후반, 매파적인 FOMC 의사록과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무효화에 따른 달러 약세와 월말 수출업체 고점 매도 물량 유입에 하락했지만,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며 하단 지지된 형국
 - 후반,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던 1월 FOMC 의사록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압박 발언 등 고조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달러를 유발했으나, 고점인식 매도물량이 상단 제한한 가운데 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달러가 약세 전환되자 환율도 하락세로 돌아선 형국
 - 수급적으로 월말 수출업체 네고물량 등 매도 우위 장세가 이어진 가운데,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과 미-이란 협상 진전 기대감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 회복으로 장 중 1,420원선 하회했으나, 국내 증시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며 반등한 끝에 1,440원선 근접 수준 마감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3 월 전망

미-이란 분쟁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위험자산 회피 심리와 달러 강세가 맞물리면서 당분간 환율 상승 압력이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

평균	1Q26	2Q26	3Q26	4Q26
달러/원 환율(원)	1,450 ^(F)	1,430 ^(F)	1,410 ^(F)	1,380 ^(F)

-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불확실성이 연준의 매파적 기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달러 강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인하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는 점은 강세 폭을 일부 제한
 -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에너지 가격을 넘어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됨. 이는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강화될 것이라는 경계감으로 이어지며 글로벌 달러 강세를 자극할 전망
 - 한편, 이러한 유가 상승이 실물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경우, 연준 의장 교체 이후 금리인하 명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달러의 추가 강세 폭을 다소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미-이란 분쟁에 따른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확산과 달러 강세가 환율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며 원화 가치의 추가 하락을 자극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최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격화되고 있음. 특히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글로벌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달러 매수세가 환율 상승의 결정적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강수를 두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차질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 약화 우려는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대외 여건 악화로 환율 상승 압력은 불가피하겠지만, 견조한 수출에 힘입은 외환 수급 개선과 한은의 신중한 통화정책에 따른 내외 금리차 확대 여지는 원화 약세 흐름을 어느 정도 조절해줄 것으로 기대
 - AI 고평가 논란 등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퍼사이클에 기반한 수출 호조로 한국 2월 수출이 전년대비 29.0% 급증하며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이어간 점은 외환 수급 여건 개선에 기여하며 원화 약세 압력을 상쇄해주는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2월 금통위가 양호한 국내 경제 여건과 금융안정 의지를 바탕으로 금리 동결한 가운데, 6개월 점도표상 동결 의견 다수였던 점은 당분간 신중한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 이는 한-미 금리차 확대를 억제함으로써 원화 가치를 뒷받침할 요인으로 판단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3월 달러/원 환율
1,455~1,485원 예상

상승요인	하락요인
· 미-이란 충돌 사태로 인한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와 달러 강세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국내 경제 타격 우려	· 반도체 부문 중심의 한국 경제 수출 호조세 · 한은의 신중한 통화정책 스탠스와 대내 금리차 확대 제한

자료: 하나은행

이중통화

엔/원전망

최근 미-이란 충돌의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달러 강세 속 동 영향의 연준 매파성 강화 등이 엔화 약세 요인으로 판단. 여기에 다카이치 총리의 여당 압승 후, 재정확대기조 유지 지속 가능성 유지 등도 엔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2월 달러/엔 평균환율
: 155.1

2월 엔/원 평균환율
: 933.4

■ **(엔화 동향)** 수출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엔저를 용인하는 듯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여파 속에 157엔대까지 상승. 중반, 일본 총선의 자민당 압승 이후 당국 구두개입성 발언 및 경기 부양 기대감에 강세로 전환했으나, 일본 성장을 부진과 매파적 FOMC 의사록에 엔화는 다시 약세로 전환. 후반, 다카이치 총리의 금리인상 난색 표명과 비둘기파 성향의 BOJ 위원 지명 소식에 추가 약세를 보였으나, 예상 웃돈 도쿄CPI에 금리인상 기대감이 재차 유입됨에 따라 약세폭 일부 되돌리며 마감

2월 엔/원 예상범위
: 930-945원

■ **(엔화 전망)**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달러 강세 강화 요인이 초반 엔화 약세 견인에 영향 미칠 전망. 동 요인이 인플레이를 자극, 연준의 매파성향 강화 측면과 자민당 선거 승리 후, 내부적 재정 확대 및 BOJ 비둘기 위원 지명 또한 엔화 약세 자극 요인으로 보임. 하지만, 월 후반 근접하며 미-이란 충돌 영향이 일부 소멸해 갈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은 점진적 달러 약세 전환을 통해 엔화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최근 미-이란 충돌 속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에 따른 연준 매파 확대 가능성 등이 엔화 약세 요인으로 예상
· 여기에 재정 확대 기조 유지, BOJ 비둘기 위원 지명도 엔화 약세 지지 예상. 반면, 월 후반으로 가며 미-이란 충돌 영향 일부 소멸 가능성 등이 엔화 상단 제한할 전망 속 엔/원 환율은 930-945원대 예상

유로/원 전망

최근 미-이란 충돌에 따른 지정학적 이슈가 연준 매파성향 강화 통해 달러 강세 지지할 전망. 여기에 천연가스 급등 등 인플레이 재상승 우려 등이 내수 부진에 영향 미치며 경기 회복력 제한할 측면도 유로 약세 요인으로 판단

2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824

2월 유로/원 평균환율
: 1,711.9

■ **(유로화 동향)** 유로존 제조업 경기 위축세와 2%를 하회한 1월 CPI 등에 ECB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 반영되며 약세 출발 했으나, ECB 관계자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에 반등. 중반,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시 불확실성에 따른 뉴욕증시 부진 등 글로벌 시장 내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가 확산된 영향으로 약세 압력을 받음. 후반,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의 보편 관세 부과 조치에 EU도 강경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자 달러 대비 강세 보이며 1.18달러대 마감

월 유로/원 예상범위
: 1,680~1,725원

■ **(유로 전망)** 최근 미-이란 충돌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확대로 달러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점이 유로 약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속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급등 양상이 그간 ECB 금리 동결 속 경기 회복력 강화를 견인하던 동력 약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으로 전반적인 유로 약세 흐름 나타날 전망
· 미-이란 충돌에 따른 영향이 안전자산 선호 및 연준 매파성향 강화를 통해 달러 강세 견인하는 측면이 유로 약세를 전반적으로 견인할 전망
· 여기에 호르무즈 봉쇄에 따른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급등은 인플레이션 유발 속에 경기 회복력 약화에 영향 미치면 전반적 유로 약세 지지할 전망. 유로/원은 양 통화의 비슷한 움직임 속 평균 1,700원 전후 예상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6년 3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한국 휴장, NWC 2026(~5) [휴장] 한국(대체 휴일) MWC 2026(~5) :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주제는 지능형 인프라, 연결형 AI, 기업용 AI, AI 넥서스 등 제시 미 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51.2) ISM 고용, 신규주문, 제조업, 구매물가 중 2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50.3) 유 2월 HCOB 제조업 PMI[F] 일 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	3 [자동차] 현대차/기아 2월 지역별 판매 데이터 3월 정기 주주총회 소집 공고 시작일 2026 미국 건설기계-콘크리트-광산기계 전시회 기아, 전기 SUV 모델 EV2 유럽 시장 출시 한 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51.2) 유 2월 CPI[P](YoY +1.7%) CPI 근원[P](YoY +2.3%) 일 1월 실업률(2.6%)	4 Beige Book, 중국 양회(정협) 연준 베이지북 공개 중국 양회(정협) :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중국 정부의 운영 방침 결정 애플, Special Apple Experience 한 1월 광공업생산(YoY -0.3%) 미 2월 ISM 서비스, 가격, 고용, 신규주문 ADP취업자 변동(22k)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F]	5 중국 양회(전인대) 중국 양회(전인대) : 중국 경제성장률 등 거시 경제 목표 제시 [기업] 케이뱅크 코스피 상장 [기업] 매추 수요예측(~11) 미 1월 수입물가(MoM +0.1%, YoY +0.0%) 수출물가(MoM +0.3%, YoY +3.1%) 2월 Challenger Job Cuts(YoY +117.8%) 유 1월 소매판매(MoM -0.5%, YoY +1.3%)	6 미 고용보고서 [기업] 에스팀 코스닥 상장 한 1월 경상수지, 상품수지 2월 CPI(MoM +0.4%, YoY +2.0%) CPI 근원(YoY +2.0%) 미 1월 소비자신용지수 2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130k) 민간 부문 고용자수 변동(172k) 시간당 평균 임금, 실업률(4.3%) 유 4Q GDP[T](QoQ +0.3%, YoY +1.3%) 고용[F](QoQ +0.2%, YoY +0.6%)	7
8	9 [기업] 엑스비스 코스닥 상장 [기업] 라센스메디칼, 코스모로보틱스 수요예측(~13) 2026 GDC Festival of Gaming(~13) 미 2월 뉴욕 연준 1년 기대 인플레이션(3.1%) 중 2월 CPI(YoY +0.2%), PPI(YoY -1.4%) 유 3월 섀텍스 투자자기대지수(4.2) 일 1월 섀행지수, 동행지수[P] 2월 경기관찰조사 연영(47.6)	10 [IT] 2월 대만 수출 데이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시행 한 4Q GDP[P](QoQ -0.3%, YoY +1.5%) 미 2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99.3) 기준주택매매(MoM -8.4%) 중 2월 무역수지, 수출/입(YoY +6.6%, +5.7%) 일 2월 통화량 M2(YoY +1.6%) 4Q GDP[F](QoQ +0.1%, YoY +3.4%)	11 지준일, 미 CPI 12 I [기업] 인벤테라 수요예측(~17) [채권] 미국 10년물 국제 입찰 OPEC 일간 원유시장 보고서 인터배터리 2026(~13) :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배터리 3사, 현대차 그룹 참여. 배터리 업계는 EV, ESS에 이어 로봇 주목 삼성전자, 갤럭시 S26 정식 출시	12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한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 추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주식 선물과 옵션 파생상품 만기일 겹치는 날 [채권] 미국 30년물 국제 입찰 상하이 국제가전박람회(AWE 2026)(~15) : 중국 AI 가전 및 서비스 로봇 기술 주목 2026 디스플레이 코리아(~13) 2026 블록체인 밋업 컨퍼런스(BCMC) 일 2월 도쿄 평균 사무실 공실률(2.1%)	13 미 PCE 물가 3월 정기 주주총회 소집 공고 시간 : 주중 슈퍼 워크 앞두고 공시 집적도 심화 가능성 한 1월 통화공급 M2(MoM +0.6%) 미 1월 PCE(MoM +0.4%, YoY +2.9%) PCE 근원(MoM +0.4%, YoY +3.0%)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6542k) 3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연황[P]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P] 4Q GDP, GDP 물가지수, 개인소비[S] 유 1월 산업생산(MoM -1.4%, YoY +1.2%)	14
15	16 엔비디아 GTC(~19) 엔비디아 GTC(~19) : 연례 개발자 행사이자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 젠슨황 CEO 기조연설 예정. 루빈 로드맵 공개 한미의원연맹 방미 예정(~22) 미 2월 광공업생산, 설비가동률 3월 뉴욕 컴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7.1) 중 2월 기준주택가격, 광공업생산 신규주택가격, 실업률(5.1%)	17 미국 FOMC(~18) [기업] 카나프테라퓨틱스 코스닥 상장 [채권] 미국 20년물 국제 입찰 미국 FOMC(경제전망)(~18) :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3.5%~3.75%로 동결. 이번 회의에서 경제전망(SEP), 점도표 주목 RBA 통화정책회의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3.85%로 25bp 인상. 물가 상승 압력으로 2023년 11월 이후 첫 인상	18 BOJ 금융정책위원회(~19) BOJ 금융정책위원회(~19)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0.75%로 동결. 춘투 결과 확인 전까지 금리 동결 기조 유지할 전망 삼성전자 등 삼성 그룹주 정기 주주총회 2026 중국 국제 로봇 박람회(~21) 한 2월 실업률(3.0%) 미 2월 PPI, PPI 근원 유 2월 CPI[F](YoY +1.7%) CPI 근원[F](YoY +2.3%) 일 2월 무역수지, 수출/입(YoY +16.8%, -2.5%)	19 ECB, BOE 통화정책회의 ECB 통화정책회의(경제전망) : 지난 회의에서 예금금리 2.0%로 5연속 동결 BOE 통화정책회의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3.75%로 동결했으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EU 정상회의(~20) : 유럽연합 정상회의. 핵심 의제는 유럽 방위 산업 전략(EDIS) 구체화와 경제 안보 로드맵 구축 미 3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전망(16.3) 유 1월 건설 생산(MoM +0.9%) 일 1월 핵심기계수주(MoM +19.1%) 광공업생산[F], 설비가동률	20 [휴장] 일본(춘분)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 추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주식 선물과 옵션 파생상품 만기일 겹치는 날 주요 대형 상장사 주주총회 워크 : 정부의 주중 분산 권고와 배당 정책 선전와 일환으로 주요 대형 상장사를 선제적으로 주주총회 진행 유 1월 무역수지, 경상수지 독일 PPI YoY, MoM	21
22	23 국제 위성통신 컨퍼런스(Satellite 2026)(~26) : 차세대 통신 기술과 우주 보안 등 논의 2026 미국 정보보안 전시회(RSAC)(~26) 한 3월 1~20일 수출/입(YoY +23.5%, +11.7%) 미 2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지수 유 3월 소비자자기대지수[P]	24 [채권] 미국 2년물 국제 입찰 중국 바이오포럼(BFA)(~27) 한 2월 PPI 미 3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S&P 글로벌 제조업 PMI[P]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P]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경기연황 유 3월 HCOB 제조업, 종합, 서비스업 PMI[P]	25 [자동차] 유럽 2월 판매 데이터 [채권] 미국 5년물 국제 입찰 세미콘 차이나(SEMICON China)(~27) : 공급망 재편 속 중국 내 반도체 자금과 및 차세대 패키징 기술 확인 2026 싱가포르 조선평양플랜트 전시회(~27) 한 3월 소비자심리지수 미 2월 수입물가, 수출물가 일 BOJ 통화정책 회의록 호주 CPI 상승률 YoY	26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서울 2026 상하이 디스플레이 박람회(~28) 코스모프루프 블로냐 2026(~29) 미 3월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일 2월 PPI 서비스 독일 GfK 소비자 신뢰지수 유로존 ECB 총회	27 정기 주주총회 슈퍼 워크 : 전통적인 주중 슈퍼 워크로 상장 기업들의 주주총회 열리는 주간. 상법 개정, 주주환원 정책 등 주목 (정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한 3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비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미 3월 캔자스시티 연준 서비스업 활동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연황[F]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28
29	30 "미 3월 달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유 3월 소비자자기대지수[F] 국제의약품바이오 산업전(~4/3) 중 3월 제조업, 비제조업, 종합 PMI 유 3월 CPI, CPI 근원[P] 일 2월 소매판매, 주택착공건수, 광공업생산[P] 실업률, 유효구인배율 3월 도쿄 CPI"	31 "미·중 정상회담(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문)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방법 마감일 [IT] 2월 DRAM 계약가격 데이터 [IT] 2월 NAND FLASH 계약가격 데이터 한 2월 광공업생산 미 1월 FHFA 주택가격지수 S&P 코어로직 CS 20개 도시 2월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 3월 MNI 시카고 PMI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자기대지수 달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2026 March

FX Market Monthly Letter

연구위원 서정훈

****@*anafn.com

연구위원 이유정

****.*@hanafn.com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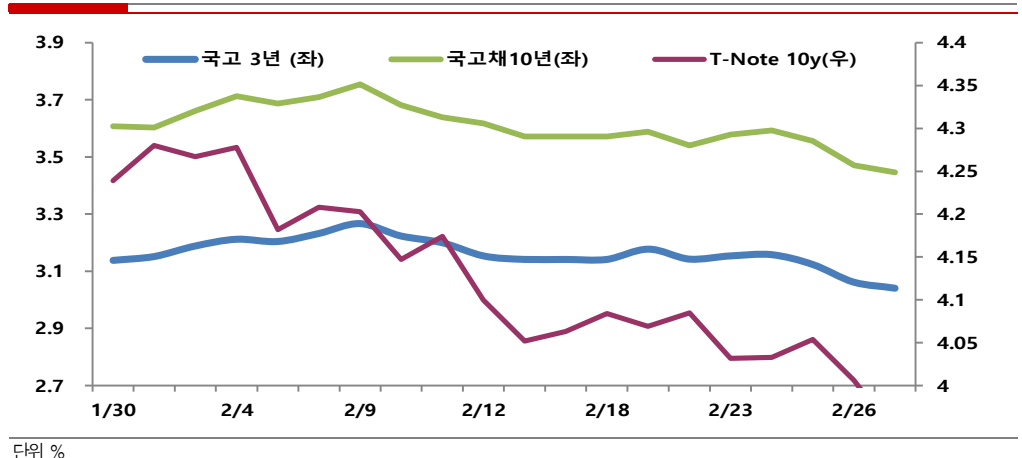
2월 동향

뉴욕 금융시장 AI 고평가 논란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반영하며 출발한 국고채 금리는 이어, 일본 자민당 선거 압승 결과 등으로 상승 전환 후, 금융당국의 과도한 금리 상승 우려 영향과 한은 비둘기적 영향 등이 반영되며 하락 마감

- 월 초, 차기 연준 의장에 매파로 인식된 워시 지명되면서 국내외 금리 상승 출발. 이어 뉴욕 금융시장 AI 고평가 논란에 안전자산 선호가 일시 나타났으나, 일본 중의원 선거의 자민당 압승에 따른 일본 국채금리 상승 흐름 반영된 국면 시현
 - 월 초, 차기 연준 의장으로 시장이 매파적으로 인식한 케빈 워시가 지명된 영향 반영 속 국내외 금리 상승 출발. 또한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 영향 또한 국고채 금리 상승 동인으로 작용했지만, 뉴욕증시에서의 AI고평가 논란 등이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친 형국
 - 하지만, 이어진 일본 중의원 선거의 자민당 압승 결과로 인해 일본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국고채 금리도 재차 상승 압력 강화되는 국면을 보였으나, 미 고용보고서에 대한 시장의 둔화 기대가 반영 속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등으로 다시금 하락 전환한 국면
- 중반, 미 고용 및 소비지표가 견조함을 보인 가운데 최근 금리 상승 과도에 대한 한은 구두 개입 영향에 하락 전환. 이어 미국, 이란 공습 임박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흐름에도 2월 금통위 매파 가능성 등이 하단 제한한 국면 시현
 - 중반, 미 1월 비농업고용지표의 시장 예상 상회와 국고채 시장 약세를 견인했지만, 이어 한은의 최근 금리 상승이 과도하다는 구두 개입성 발언으로 국고채 금리는 7거래일간 상승을 멈추고 3.1%대로 큰 폭 하락 전환
 - 하지만, 미국의 이란 공습 가능성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가 촉발되며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는 국면 보였지만, 연준 1월 FOMC 의사록이 다소 매파적으로 평가된 측면과 2월 금통위에 대한 결과가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일 것이란 우려 등이 하락폭 제한에 영향
- 후반, 미 연방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 영향과 한은 국내 성장 전망 호조 시사 등으로 상승 흐름 이어간 금리는 이어진 미-이란 간 핵 협상 타결 기대에도 한은 금통위의 비교적 비둘기적 해석 등으로 하락 마감
 - 후반, 미 연방대법원으로부터 관세의 위법 판결이 도출되며 국내외 금리 상방 흐름에 영향. 여기에 국내적으로도 한은의 양호한 내수 경기와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성장을 상향 전망에 국고채 금리 상승 흐름이 나타난 국면
 - 이어, 미-이란 사이, 핵협상에 대한 불안정성이 변동성 양상을 확대했으나, 타결 가능성의 긍정적 전망이 금리 상방 요인으로 작용. 하지만 이후, 2월 금통위가 비교적 비둘기적으로 해석된 가운데 대외 호주, 일본 금리 하락 영향도 더해지며 국고채 금리 하락 마감

주요 시장금리 추이

2월 평균
국고채(3년): 3.04%
T-Note(10년): 4.20%



3 월 전망

중동發 지정학적 이슈 확대의 유가 급등이 국내외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 작용하며 금리 상승 동인으로 예상되나, 미-이란 갈등 첨예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와 국내 경기 모멘텀 약화 우려 등은 금리 하락 요인으로 예상

평균	1Q26	2Q26	3Q26	4Q26
국고채(3Y, %)	3.05 ^(f)	2.9 ^(f)	2.95 ^(f)	3.0 ^(f)

- 연준 차기 지명자의 스탠스에 대한 불확실성 속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도 추가 관세를 제기한 미 행정부 영향 등으로 연준의 물가 관련 매파 성향 가능성 및 최근 이란 사태에 따른 유가 불확실성의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도비시한 연준 스탠스를 제한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 국내외 금리 상방 요인으로 예상
 -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의 금리 경로 기조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 속 관세 위법 결정에 따른 우회적 관세 이슈를 제기한 트럼프 행정부 영향 등은 그간 연준의 금리인하 경로 시사 등에 대한 측면에 대해 일부 되돌림 영향으로 작용할 소지
 - 여기에 최근 미국, 이란 공습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악재 또한 인플레이션 상승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준의 매파 성향이 강화될 수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기 요인들은 주요 국내외 금리 상방 압력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전망
- 대내적으로 3월 유입 가능성이 열려있는 WGBI 자금 유입 요인 및 대외적 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우회적 관세 압력을 가하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의한 미국 경기 약화 가능성 등이 국내외 금리 하방 압력에 영향 요인으로 판단. 여기에 최근 중동 지정학적 이슈 부각 속 장기화 우려 등도 국내외 금리 하방 압력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 WGBI 자금의 3월 조기 유입 가능성 속에 대외적 미 연방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회 관세 압력 요인에 따른 관세발 미 경기 개선 모멘텀 약화 가능성 등이 국내외 금리 하방 압력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여기에 최근 중동發 지정학적 이벤트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요인도 금리 하락 요인으로 판단되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장기 봉쇄 영향은 유가 급등을 통해 금리 상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국내 민간의 내수 진작과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성장 전망 상향되었지만, 대외적으로 불거진 미-이란 중동 전쟁 이슈의 유가 급등 불확실성 등 국내 성장 모멘텀 약화를 우려한 한은 비둘기 기조 강화는 금리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지난 2월 금통위는 국내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 등 경제 개선 흐름을 반영하며 성장 전망을 2.0%로 상향. 하지만 최근 중동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된 가운데 유가 급등세 시현에 따른 국내 성장 모멘텀 약화 가능성 등은 다소 금통위 매파성 완화에 영향 미칠 전망
 - 다만, 유가 불확실성이 국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은 상기 한은의 도비시 기조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국고채 금리에 대한 통화정책 영향은 상충관계 고려 시, 다소 중립적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3월 전망
2.95%~3.25%

상승요인	하락요인
· 유가 상승 우려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 대내적 내수 진작, 수출 호조 등에 의한 성장 전망 상향 조정	· 조기 WGBI 자금 유입 가능성 · 미-이란 충돌 확산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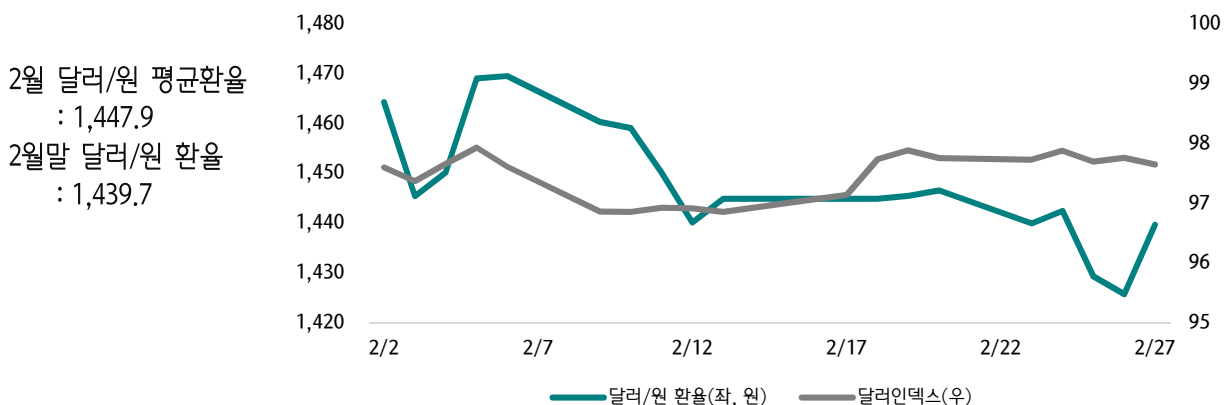
달러/원 환율

2월 동향

차기 연준 의장의 정책 성향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달러 약세와 대내 수급 여건 개선에 힘입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1,440원선에서 마감

- 월초, 다른 후보군 대비 상대적으로 매파적이라 평가받는 차기 연준 지명자 성향과 국내 증시의 대규모 외국인 자금 이탈에 1,470원대로 급등. 그러나 일본 선거 이후 나타난 엔화 가치 반등세가 달러 약세를 유도, 이에 연동되며 하락 전환
 - 차기 연준 의장으로 워시 전 이사가 지명되며 대차대조표 축소 가능성 등 매파 성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 글로벌 강달러 속 환율은 25원 가까이 급등 출발. 이후 단기 급등에 따른 되돌림 보였으나 시 논란에 따른 국내증시 역대급 외국인 순매도에 1,470원대로 상승
 - 일본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경기 부양 기대와 재정 확대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이 부각됨. 이에 BOJ 금리인상 전망이 힘을 얻으며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고, 이는 달러 약세를 유도하며 달러/원 환율의 하락 전환을 견인한 모습
- 월 중반, 설 연휴를 앞둔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과 국내 증시 내 외국인 자금 유입이 하방 압력을 가하며 환율은 장 중 1,440원 선을 하회하기도 했으나, 미 CPI 발표 전 경계감과 엔화 약세 전환에 따른 강달러 영향으로 재차 반등
 - 중반 들어, 설 연휴를 앞두고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유입되며 환율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증시 상승에 힘입은 대규모의 외국인 자금 유입에 하락 압력이 가중되며 장 중 1,440원선을 하회했음
 - 그러나 미국 1월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 내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일본 선거 이후 BOJ 금리인상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던 엔화가 되돌림되며 달러 강세를 지지하자, 달러/원 환율도 이에 연동되며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냄
- 후반, 매파적인 FOMC 의사록과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무효화에 따른 달러 약세와 월말 수출업체 고점 매도 물량 유입에 하락했지만,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며 하단 지지된 형국
 - 후반,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던 1월 FOMC 의사록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압박 발언 등 고조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달러를 유발했으나, 고점인식 매도물량이 상단 제한한 가운데 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달러가 약세 전환되자 환율도 하락세로 돌아선 형국
 - 수급적으로 월말 수출업체 네고물량 등 매도 우위 장세가 이어진 가운데,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과 미-이란 협상 진전 기대감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 회복으로 장 중 1,420원선 하회했으나, 국내 증시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며 반등한 끝에 1,440원선 근접 수준 마감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3 월 전망

미-이란 분쟁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위험자산 회피 심리와 달러 강세가 맞물리면서 당분간 환율 상승 압력이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

평균	1Q26	2Q26	3Q26	4Q26
달러/원 환율(원)	1,450 ^(F)	1,430 ^(F)	1,410 ^(F)	1,380 ^(F)

-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불확실성이 연준의 매파적 기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달러 강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인하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는 점은 강세 폭을 일부 제한
 -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에너지 가격을 넘어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됨. 이는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강화될 것이라는 경계감으로 이어지며 글로벌 달러 강세를 자극할 전망
 - 한편, 이러한 유가 상승이 실물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경우, 연준 의장 교체 이후 금리인하 명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달러의 추가 강세 폭을 다소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미-이란 분쟁에 따른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확산과 달러 강세가 환율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며 원화 가치의 추가 하락을 자극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최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격화되고 있음. 특히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글로벌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달러 매수세가 환율 상승의 결정적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강수를 두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차질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 약화 우려는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대외 여건 악화로 환율 상승 압력은 불가피하겠지만, 견조한 수출에 힘입은 외환 수급 개선과 한은의 신중한 통화정책에 따른 내외 금리차 확대 여지는 원화 약세 흐름을 어느 정도 조절해줄 것으로 기대
 - AI 고평가 논란 등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퍼사이클에 기반한 수출 호조로 한국 2월 수출이 전년대비 29.0% 급증하며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이어간 점은 외환 수급 여건 개선에 기여하며 원화 약세 압력을 상쇄해주는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2월 금통위가 양호한 국내 경제 여건과 금융안정 의지를 바탕으로 금리 동결한 가운데, 6개월 점도표상 동결 의견 다수였던 점은 당분간 신중한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 이는 한-미 금리차 확대를 억제함으로써 원화 가치를 뒷받침할 요인으로 판단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3월 달러/원 환율
1,455~1,485원 예상

상승요인	하락요인
· 미-이란 충돌 사태로 인한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와 달러 강세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국내 경제 타격 우려	· 반도체 부문 중심의 한국 경제 수출 호조세 · 한은의 신중한 통화정책 스탠스와 대내 금리차 확대 제한

자료: 하나은행

이중통화

엔/원전망

최근 미-이란 충돌의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달러 강세 속 동 영향의 연준 매파성 강화 등이 엔화 약세 요인으로 판단. 여기에 다카이치 총리의 여당 압승 후, 재정확대기조 유지 지속 가능성 유지 등도 엔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2월 달러/엔 평균환율
: 155.1

2월 엔/원 평균환율
: 933.4

■ **(엔화 동향)** 수출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엔저를 용인하는 듯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여파 속에 157엔대까지 상승. 중반, 일본 총선의 자민당 압승 이후 당국 구두개입성 발언 및 경기 부양 기대감에 강세로 전환했으나, 일본 성장을 부진과 매파적 FOMC 의사록에 엔화는 다시 약세로 전환. 후반, 다카이치 총리의 금리인상 난색 표명과 비둘기파 성향의 BOJ 위원 지명 소식에 추가 약세를 보였으나, 예상 웃돈 도쿄CPI에 금리인상 기대감이 재차 유입됨에 따라 약세폭 일부 되돌리며 마감

2월 엔/원 예상범위
: 930-945원

■ **(엔화 전망)**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달러 강세 강화 요인이 초반 엔화 약세 견인에 영향 미칠 전망. 동 요인이 인플레이를 자극, 연준의 매파성향 강화 측면과 자민당 선거 승리 후, 내부적 재정 확대 및 BOJ 비둘기 위원 지명 또한 엔화 약세 자극 요인으로 보임. 하지만, 월 후반 근접하며 미-이란 충돌 영향이 일부 소멸해 갈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은 점진적 달러 약세 전환을 통해 엔화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최근 미-이란 충돌 속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에 따른 연준 매파 확대 가능성 등이 엔화 약세 요인으로 예상
· 여기에 재정 확대 기조 유지, BOJ 비둘기 위원 지명도 엔화 약세 지지 예상. 반면, 월 후반으로 가며 미-이란 충돌 영향 일부 소멸 가능성 등이 엔화 상단 제한할 전망 속 엔/원 환율은 930-945원대 예상

유로/원 전망

최근 미-이란 충돌에 따른 지정학적 이슈가 연준 매파성향 강화 통해 달러 강세 지지할 전망. 여기에 천연가스 급등 등 인플레이 재상승 우려 등이 내수 부진에 영향 미치며 경기 회복력 제한할 측면도 유로 약세 요인으로 판단

2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824

2월 유로/원 평균환율
: 1,711.9

■ **(유로화 동향)** 유로존 제조업 경기 위축세와 2%를 하회한 1월 CPI 등에 ECB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 반영되며 약세 출발 했으나, ECB 관계자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에 반등. 중반,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시 불확실성에 따른 뉴욕증시 부진 등 글로벌 시장 내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가 확산된 영향으로 약세 압력을 받음. 후반,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의 보편 관세 부과 조치에 EU도 강경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자 달러 대비 강세 보이며 1.18달러대 마감

월 유로/원 예상범위
: 1,680~1,725원

■ **(유로 전망)** 최근 미-이란 충돌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확대로 달러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점이 유로 약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속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급등 양상이 그간 ECB 금리 동결 속 경기 회복력 강화를 견인하던 동력 약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으로 전반적인 유로 약세 흐름 나타날 전망
· 미-이란 충돌에 따른 영향이 안전자산 선호 및 연준 매파성향 강화를 통해 달러 강세 견인하는 측면이 유로 약세를 전반적으로 견인할 전망
· 여기에 호르무즈 봉쇄에 따른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급등은 인플레이션 유발 속에 경기 회복력 약화에 영향 미치면 전반적 유로 약세 지지할 전망. 유로/원은 양 통화의 비슷한 움직임 속 평균 1,700원 전후 예상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6년 3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한국 휴장, NWC 2026(~5) [휴장] 한국(대체 휴일) MWC 2026(~5) :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주제는 지능형 인프라, 연결형 AI, 기업용 AI, AI 넥서스 등 제시 미 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51.2) ISM 고용, 신규주문, 제조업, 구매물가 중 2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50.3) 유 2월 HCOB 제조업 PMI[F] 일 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	3 [자동차] 현대차/기아 2월 지역별 판매 데이터 3월 정기 주주총회 소집 공고 시작일 2026 미국 건설기계-콘크리트-광산기계 전시회 기아, 전기 SUV 모델 EV2 유럽 시장 출시 한 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51.2) 유 2월 CPI[P](YoY +1.7%) CPI 근원[P](YoY +2.3%) 일 1월 실업률(2.6%)	4 Beige Book, 중국 양회(정협) 연준 베이지북 공개 중국 양회(정협) :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중국 정부의 운영 방침 결정 애플, Special Apple Experience 한 1월 광공업생산(YoY -0.3%) 미 2월 ISM 서비스, 가격, 고용, 신규주문 ADP취업자 변동(22k)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F]	5 중국 양회(전인대) 중국 양회(전인대) : 중국 경제성장률 등 거시 경제 목표 제시 [기업] 케이뱅크 코스피 상장 [기업] 매추 수요예측(~11) 미 1월 수입물가(MoM +0.1%, YoY +0.0%) 수출물가(MoM +0.3%, YoY +3.1%) 2월 Challenger Job Cuts(YoY +117.8%) 유 1월 소매판매(MoM -0.5%, YoY +1.3%)	6 미 고용보고서 [기업] 에스팀 코스닥 상장 한 1월 경상수지, 상품수지 2월 CPI(MoM +0.4%, YoY +2.0%) CPI 근원(YoY +2.0%) 미 1월 소비자신용지수 2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130k) 민간 부문 고용자수 변동(172k) 시간당 평균 임금, 실업률(4.3%) 유 4Q GDP[T](QoQ +0.3%, YoY +1.3%) 고용[F](QoQ +0.2%, YoY +0.6%)	7
8	9 [기업] 엑스비스 코스닥 상장 [기업] 라센스메디칼, 코스모로보틱스 수요예측(~13) 2026 GDC Festival of Gaming(~13) 미 2월 뉴욕 연준 1년 기대 인플레이션(3.1%) 중 2월 CPI(YoY +0.2%), PPI(YoY -1.4%) 유 3월 섀텍스 투자자기대지수(4.2) 일 1월 섀행지수, 동행지수[P] 2월 경기관찰조사 연영(47.6)	10 [IT] 2월 대만 수출 데이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시행 한 4Q GDP[P](QoQ -0.3%, YoY +1.5%) 미 2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99.3) 기준주택매매(MoM -8.4%) 중 2월 무역수지, 수출/입(YoY +6.6%, +5.7%) 일 2월 통화량 M2(YoY +1.6%) 4Q GDP[F](QoQ +0.1%, YoY +3.4%)	11 지준일, 미 CPI 12 I [기업] 인벤테라 수요예측(~17) [채권] 미국 10년물 국제 입찰 OPEC 일간 원유시장 보고서 인터배터리 2026(~13) :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배터리 3사, 현대차 그룹 참여. 배터리 업계는 EV, ESS에 이어 로봇 주목 삼성전자, 갤럭시 S26 정식 출시	12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한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 추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주식 선물과 옵션 파생상품 만기일 겹치는 날 [채권] 미국 30년물 국제 입찰 상하이 국제가전박람회(AWE 2026)(~15) : 중국 AI 가전 및 서비스 로봇 기술 주목 2026 디스플레이 코리아(~13) 2026 블록체인 밋업 컨퍼런스(BCMC) 일 2월 도쿄 평균 사무실 공실률(2.1%)	13 미 PCE 물가 3월 정기 주주총회 소집 공고 시간 : 주총 슈퍼 워크 앞두고 공시 집적도 심화 가능성 한 1월 통화공급 M2(MoM +0.6%) 미 1월 PCE(MoM +0.4%, YoY +2.9%) PCE 근원(MoM +0.4%, YoY +3.0%)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6542k) 3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연황[P]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P] 4Q GDP, GDP 물가지수, 개인소비[S] 유 1월 산업생산(MoM -1.4%, YoY +1.2%)	14
15	16 엔비디아 GTC(~19) 엔비디아 GTC(~19) : 연례 개발자 행사이자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 젠슨황 CEO 기조연설 예정. 루빈 로드맵 공개 한미의원연맹 방미 예정(~22) 미 2월 광공업생산, 설비가동률 3월 뉴욕 컴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7.1) 중 2월 기준주택가격, 광공업생산 신규주택가격, 실업률(5.1%)	17 미국 FOMC(~18) [기업] 카나프테라퓨틱스 코스닥 상장 [채권] 미국 20년물 국제 입찰 미국 FOMC(경제전망)(~18) :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3.5%~3.75%로 동결. 이번 회의에서 경제전망(SEP), 점도표 주목 RBA 통화정책회의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3.85%로 25bp 인상. 물가 상승 압력으로 2023년 11월 이후 첫 인상	18 BOJ 금융정책위원회(~19) BOJ 금융정책위원회(~19)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0.75%로 동결. 춘투 결과 확인 전까지 금리 동결 기조 유지할 전망 삼성전자 등 삼성 그룹주 정기 주주총회 2026 중국 국제 로봇 박람회(~21) 한 2월 실업률(3.0%) 미 2월 PPI, PPI 근원 유 2월 CPI[F](YoY +1.7%) CPI 근원[F](YoY +2.3%) 일 2월 무역수지, 수출/입(YoY +16.8%, -2.5%)	19 ECB, BOE 통화정책회의 ECB 통화정책회의(경제전망) : 지난 회의에서 예금금리 2.0%로 5연속 동결 BOE 통화정책회의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3.75%로 동결했으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EU 정상회의(~20) : 유럽연합 정상회의. 핵심 의제는 유럽 방위 산업 전략(EDIS) 구체화와 경제 안보 로드맵 구축 미 3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전망(16.3) 유 1월 건설 생산(MoM +0.9%) 일 1월 핵심기계수주(MoM +19.1%) 광공업생산[F], 설비가동률	20 [휴장] 일본(춘분)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 추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주식 선물과 옵션 파생상품 만기일 겹치는 날 주요 대형 상장사 주주총회 워크 : 정부의 주총 분산 권고와 배당 정책 선진화 일환으로 주요 대형 상장사를 선제적으로 주주총회 진행 유 1월 무역수지, 경상수지 독일 PPI YoY, MoM	21
22	23 국제 위성통신 컨퍼런스(Satellite 2026)(~26) : 차세대 통신 기술과 우주 보안 등 논의 2026 미국 정보보안 전시회(RSAC)(~26) 한 3월 1~20일 수출/입(YoY +23.5%, +11.7%) 미 2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지수 유 3월 소비자자기대지수[P]	24 [채권] 미국 2년물 국제 입찰 중국 바이오포럼(BFA)(~27) 한 2월 PPI 미 3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S&P 글로벌 제조업 PMI[P]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P]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경기연황 유 3월 HCOB 제조업, 종합, 서비스업 PMI[P]	25 [자동차] 유럽 2월 판매 데이터 [채권] 미국 5년물 국제 입찰 세미콘 차이나(SEMICON China)(~27) : 공급망 재편 속 중국 내 반도체 자금과 및 차세대 패키징 기술 확인 2026 싱가포르 조선평양플랜트 전시회(~27) 한 3월 소비자심리지수 미 2월 수입물가, 수출물가 일 BOJ 통화정책 회의록 호주 CPI 상승률 YoY	26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서울 2026 상하이 디스플레이 박람회(~28) 코스모프로프 블로냐 2026(~29) 미 3월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일 2월 PPI 서비스 독일 GfK 소비자 신뢰지수 유로존 ECB 총회	27 정기 주주총회 슈퍼 워크 : 전통적인 주총 슈퍼 워크로 상장 기업들의 주주총회 열리는 주간. 상법 개정, 주주환원 정책 등 주목 (정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한 3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비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미 3월 캔자스시티 연준 서비스업 활동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연황[F]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28
29	30 "미 3월 달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유 3월 소비자자기대지수[F] 국제의약품바이오 산업전(~4/3) 중 3월 제조업, 비제조업, 종합 PMI 유 3월 CPI, CPI 근원[P] 일 2월 소매판매, 주택착공건수, 광공업생산[P] 실업률, 유효구인배율 3월 도쿄 CPI"	31 "미·중 정상회담(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문)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방법 마감일 [IT] 2월 DRAM 계약가격 데이터 [IT] 2월 NAND FLASH 계약가격 데이터 한 2월 광공업생산 미 1월 FHFA 주택가격지수 S&P 코어로직 CS 20개 도시 2월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 3월 MNI 시카고 PMI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자기대지수 달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